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61

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

(역대상 22장,
열왕기상 1:1~2:12)

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
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.
물론 다윗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
죄를 지은 적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
진심 어린 기도로 죄를 뉘우쳤고 하나님께서도
다윗의 기도에 늘 대답해 주셨죠.

다윗은 왕이 된 직후부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.
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선지자
‘나단’을 불러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.

**“나는 이렇게 좋은 재료로 지은 으리으리한
왕궁에서 지내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
동물 가죽으로 만든 ‘성막’에 있다는 것이
좀 그렇지 않소?
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다 정성을 들여서
하나님을 위한 ‘성전’을 짓고 싶소.”**

**그러자 선지자 나단이
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.**

**“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
왕께서는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
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
지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.
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을
알고 계십니다.
따라서, 왕을 대신해 성전을 건축할 후계자를
세워 주실 것이며 왕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영원히
통치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.”**

**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, 훗날 ‘솔로몬’ 왕자가
새 왕이 될 거라고 알려주셨어요.
그제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죠.**

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.

**“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은
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만큼 크고
아름다워야 할 것이요.**

**그러니, 지금부터 미리 성전 지을 준비를 해 두어야
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
성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요.”**

그때부터 다윗은, 차곡차곡 건축 재료들을
모아두기 시작했어요.
당시 최고급 나무로 꼽혔던 ‘백향목’을
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느라 하면 무게를 짤 수 없을 만큼
엄청난 양의 소를 준비시켰죠.

그리고 돌을 다듬는 데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
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
성전에 필요한 돌을 열심히 다듬게 했답니다!

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
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.
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리기 힘들 정도였고
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날이 많았죠.
그러자 다윗의 아들들 중에 ‘아도니아’가
왕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어요!

“여러분, 이제 제 아버지는 기력이 쇠하셨습니다.
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!
저 아도니아가 여러분의
왕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! 하하하!”

아도니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전차를 타고 호위병들을
거느리며 의기양양하게 다녔어요.
그리고 하루는,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
큰 잔치를 열었죠.
다윗 왕의 군대 장관 ‘요압’과
대제사장이었던 ‘아비아달’도 잔치에 참석했어요.

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야와 뜻을 함께한 거죠.
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
‘나단’은 무척 화가 났어요!
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야가 아닌
솔로몬’을 왕으로 계획해 두셨으니까요.

아도니야와 솔로몬은 서로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에,
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‘밧세바’를 찾아갔어요.

**“지금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.
아도니야가 왕이 되면
솔로몬 왕자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?
어서 왕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”**

두 사람은 서둘러 다윗 왕을 찾아갔고
아도니야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.

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.

**‘전에 압살롬도 왕이 되려 하다 목숨을 잃었었지.
지금 당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
아도니아에게도 끔찍한 일이 생길지 몰라...’**

그리고 다윗은, 선지자 나단을 곁으로 불러
조용히 명령을 내렸어요.
나단은 서둘러 움직였어요.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.

나단은 솔로몬을 노새에 앉히고는 제사장과
한 명과 신하들과 함께 ‘기혼 샘물’로 데려가게 했어요.

그리고 그 샘물에서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죠.
그건,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.
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하들이
나팔을 불며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죠.

“솔로몬 왕 만세! 솔로몬 왕 만세!”

**“뭐? ‘솔로몬 왕 만세’라고..? 왕께서 솔로몬 왕자를
후계자로 정하신 모양이구먼!”**

**“다윗 왕이시라면. 분명 옳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.
솔로몬 왕 만세! 솔로몬 왕 만세!”**

**그때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
들려오는 큰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! 요압이 말했죠.**

**“무슨 일인가?
성 안이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?”**

누군가가 달려와서 말했어요.

**“다윗 왕께서
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합니다!”**

잔치에 있던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.

**“뭐, 뭐야... 우린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고
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께
반역을 한 꼴이 아닌가...?
여기 더 있다가 큰 벌을 받을 거야 걸음아 나 살려라!!”**

**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바빠져 뿔뿔이 흩어졌어요.
아도니아도 재빨리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서 몸을 숨겼죠.
사람들 앞에서 으스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어요.**

여러분,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
새 왕이 되었어요!

어린 시절,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
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
40년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세상을 떠났죠.

그리고 먼 훗날,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
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
한 분이 태어나게 돼요.
그리고 다윗이 양들을 돌보았듯
그분은 우리 모두를 ‘어린 양’처럼 이끌어 주실 거예요.

그리고 바로 그때,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을 영원히
통치할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
이루어지게 된답니다!